

# “생명으로 줄지어 나오는 사랑의 실체”

## 내 문학의 세 꼭지점, 체험과 책읽기와 시쓰기

정진규

시인

체험·책읽기·시쓰기, 반드시 이런 순서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시쓰기’는 이 세 가지의 꼭지점을 서로 순화 교용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시쓰기’가 나를 집약하는 가장 구체적인 행위이고 그 결과라는 점에서는 가장 뒷자리에 놓여야 할 것 같지만 그것 또한 그렇지 않다. 이미 혼란된, 또는 혼란 말로 의식화된 나의 ‘시쓰기’의 어떤 보이지 않는 잣대가 가장 사실적인 체험마저 유도하고 ‘책읽기’ 또한 그런 범주 안에서 이행되고 있을 때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태도는 체험을 왜소하게 만들고 책읽기를 오독으로 이끄는 위험스러움의 그것이 될 수도 있다. 경계해야 할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 상이한 요소들이 어떤 저항과 충돌의 과정을 거쳐 빚어내는 화해의 궁극이 늘 새로운 길 하나를 제시해 주던 것을 나는 체험으로 알고 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발레리가 「드가·춤·그림」이라는 에세이에서 그랬던가, 연필을 들기 이전의 세계와 연필을 들고 작업을 하는 동안에 전개되는 세계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는 지적은 이런 사정을 아주 잘 확인해 주는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예술행위의 순수성은 그렇게 또다른 세계를 예측하지 못하는 가운데 빚어질 수 있으니까 말이다. 아무튼 ‘체험’도 그렇고 ‘책읽기’도 그렇다. 서로 열린 통로를 지니고 그들은 하나의 단어 한 줄의 글을 읽는 동안이나, 한 그릇의 물을 마시거나 피어 있는 꽃 한 송이를 잠시 바라보는 동안에도 서로 분주하게 드나들고 있음이 확실하다. 이를테면 한 물가에 이르러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金宗三의 아주 좋은 시 한 편을 동시에 떠올렸을 수도 있다.

물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墨畫」

또 꽃을 바라보면서는 金春洙의 시에 나타나는 일련의 ‘꽃들’을 기억한 경험을 누구나 지니고 있을 것이다.

그 순서가 어찌되었건 이렇게 상호 순환 교용하는 가운데 나의 ‘시쓰기’는, 아니 넓게 보아서 내가 살아가는 일은 그 모양새를 나름대로 만들어가고 있다. 최근에 씌어진 몇 편의 시들만을 두고 보아도 그렇다. 요즘은 나는 ‘안과 밖’, ‘꼭지’, ‘경첩’이라는 말들에 깊게 빠져있는데 이들에 얽힌, 이들이 서로 드나드는 통로에서 용기, 혹은 생성되고 있는 것들이 그것이다.

늘 보아왔겠지만 열매들이나 이파리들을 매달고 있는 ‘꼭지’가 내게 새삼스런 의미와 이미지로 다가왔던 것은 얼마 전의 일이었다. 그걸 그대로 시로 옮기기도 했지만, 그것은 지난해 늦가을 늘 내가 한참씩 쉬어가곤 하는 사무실 근처 한 미술관의 뒷마루에서였다. 나는 아직 남아 있는 늦가을의 햇살 속에서 내 마음의 맨살들을 꺼내어 말리고 있었는데 그 뜨락의 감나무 한 그루가 내게 다가왔고 거기까지 밥으로 남겨 둔 오직 한 알의, 바알간 맨살의 연시를 위태롭게 매달고 있는 ‘꼭지’가 일순 나를 압도하던 거였다. 나는 놀랐다. 그때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거려왔던 내 내면의 세계 하나가 아주 잘 극복된 실체로

물에서 피어나는 수련 때문에  
넷물 전체가 술렁댄다는 표현은  
무엇을 뜻하는가. 생명의 화응이다.  
체험과 책읽기와 시쓰기도 그러하다.  
책을 읽으면 감흥의 파문이  
퍼져나가 체험과 시쓰기에의 욕망도  
술렁인다. 서로 다른 것들이  
‘꼭지’를 통해 수시로 드나드는  
것이다. 그러면 ‘꼭지’란  
무엇인가.

거기 그렇게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건 다름아닌 아주 어려서부터 시달려왔던 안과 밖, 개인과 집단, 나와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사이의 문제, 그 거리를 어떻게 하나로 엮고 화해시켜야 할 것인가가 거기서는 아주 시침뚝 뚝 모습으로 해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꼭지’가 그걸 해 내고 있었다. ‘꼭지’라는 이름으로 이음새의 형태를 보이고 있을 다른 열매와 가지가 한몸으로 맞물려 있었다.

그리고보니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이 꼭지 형태로 맞물려 있지 않은 것이 거의 없었다. 우선 우리 인간들의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탯줄이 그렇고 자연의 모든 현상이 그러했다. 인간의 조작물인 기계들도 다들 바 없었다. 직선이 되었건 나선이 되었건 요철이 되었건 모두 그렇게 맞물려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미지가 이미지를 부르고 의미가 의미를 부른다고 할까, 이미 이같은 체험 직전의 나의 ‘책읽기’가 거기에 와 있었던 것이다. 나의 책읽기 노트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적혀져 있음을 발견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A.

“움직이는 물은 그 물 속에 꽃의 두근거림을 지니고 있다”라고 시인은 말한다. 꽃 한 송이가 더 피어나는 것만으로도 넷물 전체가 술렁대는 것이다.

—가스통 바슐라르, 「꿈꿀권리」,  
이가림역, 1990, 열화당.

B.

그날 그날의 활동에 있어 독자가 끊임없이 무의식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용한 방향부여의 작용을, 작은 일부만 바라보기로 하자. 이를테면, 일상적인 하루가 시작되는 최초의 수분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안-밖(in-out)의 방향부여 중에서 몇가지 예를 생각해 보자.

당신은 잠에서(out) 깨어나, 침구 안에서(out) 방을(into) 물끄러미 본다. 차츰 무감각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침구에서(out) 나와, 옷을(into) 서둘러 입고, 손을 빨치고(out), 멍한 채(in a daze) 침실에서 나와서(out), 욕실로(into) 들어간다. 거울을 들여다보니(in), 자신의 얼굴이 이 쪽을(out) 보고 있는 것이 보인다. 선반으로(into) 손을 뻗쳐서 치약을 꺼내어(out) 소량을 짜 낸다(out). 치솔을 입에 넣고(into), 이를 급히(in a hurry) 닦고 양치질을 한다(rinse out). 조반을 먹을 때 당신은 더욱 많은 안-밖 운동을 해 보인다. —커피를 따르고(pour out), 요리를 차려놓고(out), 빵을 토스터에(in) 넣고 잼을 토스트에 바르고(out) 등등, 일단 분명히 깨이면 당신은 신문물(in) 읽을지도 모르며, 대화에(into) 참가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무슨 화제에 관해서는 똑똑히(out)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러한 안(in) 밖(out)의 의미들에는, 공간에서 명확한 방향부여를 수반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 이를테면 대화에 참가하는 것과 같이 추상적이고도 비공간적인 관계를 수반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물리적 실체나 사건 내지 추상적 실체나 사건 사이에 관계를 세우는 활동을 필요로 한다.

—마크 존슨, 「마음 속의 몸」, 이기우 역,  
1993, 한국문화.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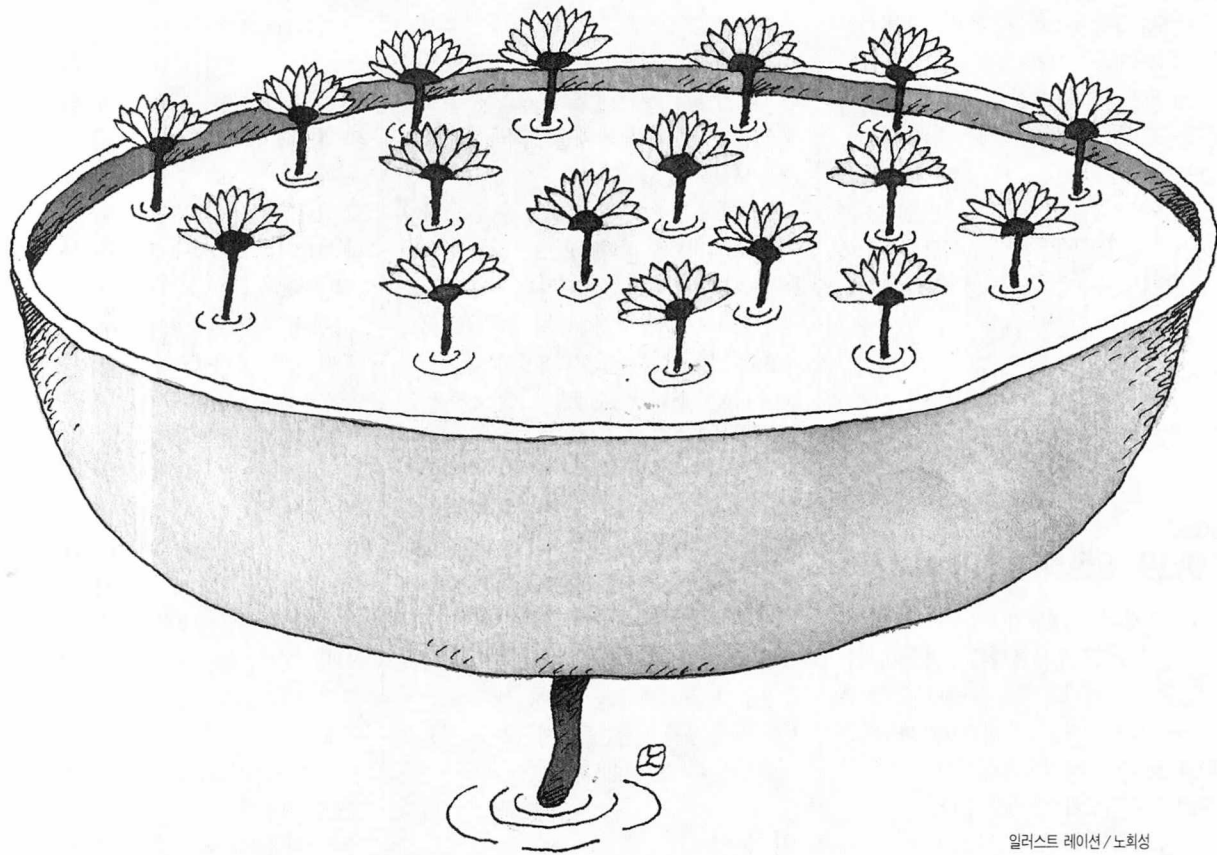
당신은 차이와 분절을 가리킬 수 있는 단 하나의 말을 찾기를 꿈꾸었습니다. 우연히 「로베르사전」을 뒤적이었다가 나는 그 말의 이중적 의미를 받아들인다는 조건에서 그 말을 찾아냈습니다. 그 말이 바로 ‘경첩 brisure’입니다.

—자끄 데리다, 「입장들」의 주석, 1993,  
술

좀 장황스런 인용이 되어버렸지만, 위의 ‘책읽기’들은 무슨 체계나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그 담고 있는 내용들이 서로 일치되는 세계를 지니고 있었다. 서로가 ‘마음 속의 몸’으로 만나고 있었다. 서로를 건너다니는 ‘꼭지’를 달고 있었다.

인용A는 모네의 그림 ‘수련’을 투시한 에세이. 물 속에서 피어나는 수련을 두고 그 피어남 때문에 넷물 전체가 술렁대는 것으로 보고 있는 이 순도 높은 감지의 안테나는 무엇을 뜻하는가. “물은 그 물 속에 꽃의 두근거림을 지니고 있다”는 그 “두근거림”은 무엇인가. 그것은 생명의 화응이다. ‘꼭지’의 열린 통로가 물과 꽃 사이를 가득 채우고 있는 충만의 현상이다. 그 ‘술렁댐’이다. 무엇이 이런 감지의 힘을 가져다주고 있는가. 물과 꽃 사이를 이어주고 있는 ‘꼭지’의 열린 통로, 그것은 물론 상상력의 세계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생명의 자양으로서의 물과, 생명의 발현으로서의 꽃은 하나의 근원적인 ‘꼭지’로 크게 맞물려 있었던 거였다.

인용B는 인간세계라는 구체적인 영역(몸)과 예술세계라는 추상적인 영역(마음)을 연결하는 상상력의 고리를 하나의 이미지 도식구조(image-Schematic



일러스트 레이션 / 노희성

structures)로 제시한 마크 존슨의 구체적 예증. '안'과 '밖'이 동시 병행되고 있는 공간과 비공간 속에서 전개되는 모습들이 아주 재미있다. 그들은 따로 있지 않고 함께 있다. 순환과 교응의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꼭지'를 두고 있다. "그것들은 물리적 실체나 사건 내지 추상적 실체나 사건 사이에 관계를 세우는 활동을 필요로 한다"는 마크 존슨의 집약이 아주 정곡을 꿰뚫고 있다. "관계를 세우는 활동", 그게 바로 '꼭지'의 활동이 아니겠는가.

인용C는 흔히 '차이'로 번역되는 'difference'에 대한 자끄 데리다의 내용적인 추구. 아니 그 실질(substance)의 세계. 아직 이 방면에 대한 책임기가 부족한 나로서는 자신이 서지 않지만, 이 또한 '꼭지'의 세계로 나는 이해했다. 그들은 서로 떨어진 거리의 것이 아니라 '경첩'이란 말로 만나지는 세계라고 그가 쓰고 있기 때문이었다. '경첩'이 무엇인가. 이희승 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돌쩌귀처럼

쓰는 장식의 이름. 모양이 같은 쇠조각 두 개를 맞물리어서 만들며, 창문이나 세간의 문짝을 다는데 씀. 합엽(合葉)"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경첩의 기의 또한 '꼭지'의 세계 그것에 틀림없다고 나는 짐작했다. 서로 다른 것을 하나로 이어주고 있으니까 말이다.

거듭 놀라지만 이미지가 이미지를 부르고 의미가 의미를 부르는 예인의 관계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 이런 관계 세우기, 관계 활동으로 나의 다음 시편들은 씌어졌다. 그것들은 또 쓰는 행위의 과정 속에서 새로운 체험의 세계를 환기했고 또다른 '책임기'의 행위 또한 동시 병행하였다. 사실적 체험의 변형(분모를 함께 하는)이 이루어졌으며 책 속의 또다른 책을 읽어 내었다.

기억나지 않지만 물 속에 깨끗한 물 속에 꽃의 두근거림이 있다고 누군가가 말했다 이른 새벽에 안개를 헤치고 가서 풀밭을

한참 걸어가서 물가에 당도하여서 젖은 발로 그걸 보고 들었다고!

그는 다시 말했다 햇살이 그의 따뜻한 혀로 이슬을 핥기 시작한 바로 그때쯤, 마침내 물 속에서 솟아오른 꽃을 두고 오, 물이 알을 낳았다고!

그러니까 꽃은 알이다 그러니까 물은子宮이다 두근거림이란 회임한 내 아내의 배에 귀를 대고 내가 듣던 바로 그런 소리다 내게도 그런 날이 있었다

상처를 알아다오, 물 속 꽃의 두근거림아!

—「몸詩·49」—물 속에 꽃의 두근거림이 있다

위의 시에는 바슐라르 읽기가 있고 '나'의 생명적 체험과 하나로 이어주는 '꼭지'로서의 상상력이, 그 소산으로서의 이미지가 있다. 지금은 상실 속에 있는 생명의 회구(상처를

알아다오, 물 속 꽃의 두근거림아!)가 있다.

그냥 보아서는 어렵다 八色조차 우리 눈은 한 눈으로 가려내지 못한다 八色鳥의 八色은 따로따로 놀지 않는다 이음새가 절묘하다 서로 끌고 당겨서 一色을 빚어 낸다 鳥類保護協會 회원 이향란이가 가져다 준, 가만히 바위 위에서 즐기고 있는, 경남 거제도 동부면 학동리에서 윤무부 새박사가 직접 찍었다는 八色鳥의 사진을 며칠 들여다보다가 또 한 손 배웠다 오, 一色이여 美人이여

—「八色鳥」—몸詩別篇

위의 시의 '이음새'라는 말을 나는 발표가 있고 난 뒤에 '이음매'라고 바꾸어 놓고 있다. 왜냐하면 '이음새'의 '새'는 아무래도 이어진 부분이 노출된 느낌을 준다. '새'라는 말은 아무래도 '사이'가 축약된 말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음매'의 '매'는 '새'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접미사이지만 훨씬 아름다운 상징성을 음성적으로 내포하고 있으며, 아주 잘 빠진 조화의 실체를 보이기 위해 그렇게 고쳤다. 실로 저 팔색조의 여덟가지 색깔이 여덟가지이면서 하나의 세계를 이루어 내는 그 조화로우며, 그 관계세우기는 실로 꼭지 중의 꼭지였다. 그것들은 활짝 열린 에스프리의 통로를 통해 생명으로 줄지어 나오는 사랑의 실체들을 보내고 있었다. 이러한 나의 발견 또한 팔색조에 대한 구체적 체험과 조화로우며 대한 책임기, 그것의 실체 만나기 등을 바탕으로 하여 표현을 얻고 있음이 분명했다.

거듭 확인하지만 '체험'과 '책임기' 그리고 '시쓰기'는 나의 경우, 그 수순에 관계없이 서로 관계를 세우는, 꼭지를 만들어 내는 하나의 생명적 활동으로 함께 자리하고 있음이 확실하다.